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지효 스님

확철대오하기 전에 법상에 오르지 않겠다



스님의 눈빛은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다. 그 모습은 눈이 외부로 향해 열려 있다기보다 내부를 향하여 자신을 보고 있는 심득의 경지이다.



임추기(부분), 88x59cm, 종이에 수묵, 2013. 하늘길(까치밥)은 새들과 공유한다. 그이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자연의 본성에 충성한 삶을 살았다. 오직 한 물건을 향한 스님의 참모습과 방불하다.

사진작가 주명덕 선생으로부터 관조 스님에 대해 저간의 여러 말씀을 전하며 연락처를 건네 주었다. 나는 관조 스님께 전화를 드린 후 부산 범어사로 스님을 찾아뵈었다. 관조 스님과 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 되었지만 이후 입적할 때까지 국내·외 여행과 스님의 사진집 출간 그리고 전시 개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에 함께 했다. 첫 만남에서 스님은 은사스님이신 지효 스님의 영정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지효 스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기억하기 어렵지만 힘이 있었고 절실한 효심이 묻어 있었다.

“지효 스님은 불교 평화 운동에 앞장섰던 분으로 상황이 여의지 않자 할복으로 조계종의 법통을 지키려 한 분입니다. 우리 스님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당시 할복 후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 두 분이 출가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스님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림자에 한 약속조차 철저히 지킬 정도로 내외가 동일한 분이었어요. 스님께서 늘 긴장감과 힘이 들어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시기에 모든 끈을 놓아버린 뒤 자유로움이나 거리낌 없는 소요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스님은 자신의 형태대로 원칙이 가장 편한 분입니다.”

나는 관조 스님에게 지효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극락전 방으로 안내해 달라 부탁했다. 방 한쪽에 지효 스님 초상화가 기대어 있었다. “이 초상화를 본 대부분의 스님이 지효 스님을 닮지 않았다고 하고 나도 스님의 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김 화백에게 부탁하고자 불렀습니다. 작가에게 이미 재제작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고 작가 또한 김호석이 그린다면 좋겠다면서 동의했으니 불편해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지효 스님의 진영을 그렸던 작가가 저를 추천했다는 사실에 고마웠다. 그렇게 해서 스님의 진영 작업은 시작됐다.

지효 스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선재 스님으로부터 정성스럽게 비닐로 코팅하여 보관한 작은 사진자료를 받아 왔다. 사진을 보면서 스님의 행적과 삶을 생각해 보았다. 스님은 출가 전 의료 사업을 하였고 일본과 중국을 왕래하였다. 해방 직전 남한으로 내려 와 출가했다. 평생 선방 수좌로만 사셨다. 법문 한번 한 적이 없고 법상에 올라 설법한 사실도 없다. “참된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확철대오하기 전에 법상에 오르지 않겠다”는 신념을 견지한 절저한 수행승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한줄 글로도 남기지 않았다.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투철하였고 깨끗하게 살다 정직하게 가셨다.

스님은 불교 평화 때 할복으로 조계종 법통을

지키려 했다. 끈고 강한 성품은 평생 일관했다.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 수행을 마치고 해인사에 내려 와 있을 때 성철 스님의 법문 중 “조계종 법통이 엉망이다”는 말을 듣고 현실의 또 다른 모습에 화가 났다. 가지고 있던 염주로 성철 스님을 내려 쳤고 성철 스님은 주장자로 이를 막았다. 이런 소동 후 두 스님을 화해시키기 위해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들어간 지 5분도 채 안되어 호방하게 대화하더니 파안대소 하고 나왔다. 원칙주의자였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대자유인 이었다. 스님의 속마음은 더욱 넓고 깊었다.

스님에 대한 윤곽이 잡혀 갈 즈음 가장 스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궁급했다. 첫 번째 진영 작업은 선재 스님이 건네 준 사진을 참고로 하였다. 관조 스님은 평소 모습과 다른 카메라 왜곡이 있는 모습이라 하였다. 더욱이 의례적 모습이어서

다. 이마는 주름이 여럿 있다. 특히 이마에는 스님의 마음과 다스림, 감정과 사유 그리고 삶의 신표 체계가 드러나 있다. 나는 이마 주름을 통해 스님에 대한 시각 기호를 남기기기로 했다. 눈두렁은 움푹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눈은 작고 가늘다. 눈빛은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다. 그 모습은 눈이 외부로 향해 열려 있다기보다 내부를 향하여 자신을 보고 있는 심득의 경지이다.

코는 시원하게 뻗어 있지만 코 망울은 얇다. 입은 가늘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절제 한 삶이 나타나 있다. 유독 입 주변 근육에서 가장 긴장감이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 할 때 입에 힘을 주는 것인데 스님의 모습에서 유독 강렬했다. 말은 짧고 간단하지만 고집이 있는 것으로 임해진다. 코 아래로 생긴 주름과 하악골 주변에 생긴 근육을 통해서 짐작했다.

귀는 크고 길다. 양 귀속에는 하얗고 긴 털이 연기처럼 나와 있다. 목에는 주름살이 지난한 구도 행적을 표시하고 있다. 나는 이런 느낌을 살려 지효 스님 진영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작업한 진영은 관조 스님의 배관을 거쳐 범어사에 보내졌다. 이때 관조 스님은 “진신을 그리기 위해 화가 본연의 뜻을 다 하였으니 초상화의 특성도, 그림을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작가의 진정성과 긴장감 그리고 작품의지가 살아있는 그대로 뜻을 지켜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지효 스님 진영에는 이런 관조 스님과 그의 스토리가 있다.

나는 최근 현대불교에 연재를 하면서 15여 년 전에 그렸던 지효 스님 진영의 행방을 수소문 해 본 결과 극락전 방에 기대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진영에 표현된 지효 스님의 눈이 몽롱하고 초점이 없다. 스님이 이상주의자인 것은 맞는데 너무 멍하게 쳐다보는 것 같다. 또한 양쪽 턱이 각이 져 있어 사실과 조금 다르게 보인다. 완성한 진영이 몇 살의 스님 모습인지 연대가 잡히지 않는다. 스님의 이미지와 달라 아직 점안을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서울에 올라가 관조 스님이 찍은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나는 스님의 눈에서 세상일에 문을 닫아 버린 지 오래된 마음의 눈을 보았다. 스님은 눈을 뜨되 보지 않고, 눈을 감되 어둠이 없는, 오직 자신의 본성에 침잠해 있는 스님의 참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린 그림을 모시지 않고 한쪽 벽에 외로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죄송스럽다. 상좌 스님들 마음에 차지 않는 그림이라면 다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생전 지효 스님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잘 모시고 싶다.

스님은 절저한 수행승이었다.

자신의 흔적을 한줄 글로도 남기지 않았다.

자신의 삶에 투철하였고

깨끗하게 살다 정직하게 가셨다.

할 진영을 반 가사 모습으로 그렸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버린 그림이 되었다.

두 번째 진영 작업은 전적으로 관조 스님이 건네준 사진을 참고로 하였다. 사진 자료는 많았지만 가장 스님다운 모습이라며 지정해준 상태를 기준으로 했다. 생전에 지효 스님을 뵈지 못한 상태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스님의 여러 모습을 작업실 벽에 붙여 놓고 한 달여 동안 스님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체구에서 오는 특징은 어깨와 등이 굽은 구부정한 자세이다. 인상은 깎간해 보였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형상으로 임해졌다. 스님의 얼굴은 길고 피부는 얇다. 최소한의 허영심마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순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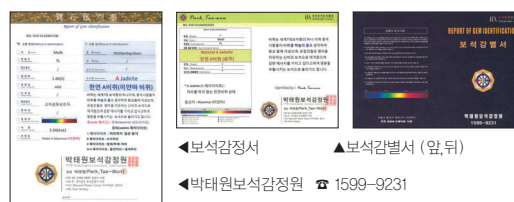
눈썹은 길고 하얗다. 그러면서 좌우측으로 내려가 신신같이 신비롭고 청초한 기세를 내 뽐는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사진의(보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균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할, 혈액순환 원할,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